

연료첨가제, 고유가 타고 “활황”

옥션, 리비아 사태로 100% 이상 폭증 ... 엔진세정제 · 엔진오일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료첨가제 판매량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옥션에 따르면, 2월 들어 연료첨가제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9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리비아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일주일(18-24일) 사이 연료첨가제 판매량은 106% 늘어났다.

연료첨가제는 엔진 내부에 쌓이는 연소 찌꺼기들을 제거해 연소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세를 타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19주 연속 상승하면서 서울에서는 리터당 2100원을 웃도는 주유소가 나오고 있고 전국 평균 가격도 1900원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알제리, 리비아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료첨가제는 크게 고체(정제타입) 및 액체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옥션에서는 3만원 안팎의 연료첨가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페룩스(4만5000원/40알)는 고체 연료첨가제로 투입하면 약 20%의 연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액체형 엔진세정제 불스원샷(1만9000원/500ml 2개), 엑슬란(1만3000원/275ml) 등은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연료첨가제와 함께 연비를 높여주는 엔진오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엔진오일은 엔진 소음과 진동을 줄여 주는 동시에 엔진의 마모를 막고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어 화학 첨가제를 넣은 합성유제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도 엔진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엔진코팅제(1만5900원), 연료 절감기(2만9800원), 친환경 엔진오일(2만7000원) 등도 수요가 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28>